

……佛 教 第 四 十 五 講……

다. 이것이 만일 어떠한 개인의私物이었으며 非公物이었으면 어느 시대에 어떠한 업서적술은 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理由와緣起를 모르고 이와가치 尊貴한常住物三寶物을 어떠한管理者의私有物가치 억이고 不淨惡用하는자가 있다면 死後爲 蛇蝎다는傳說을且置하고 生陷地獄하고도 罪가오 히의남을入것이다. 形式은조금 다르나 現今에財團 法人이나 社團法人이나組織하여야 어떠한個人이私用 치못하게하는 經濟活用の組織은 佛敎의三寶常住 物保存思想의影響이 업지아나하리라고생각한다. 吾人이眞僧이라함은 何必淨行의小乘比丘를 指한것 이아니다. 어떠한階級 어떠한職業에屬한사람이라 도 法의緣起와財의緣起를總達하여 淳朴眞實한原 始佛敎徒의생각으로 無貪無求하되 그勞力하는功 德이 人天에미칠만한波紋을이르킬만한사람이면眞 僧이라할入것이다. 眞僧은菩薩도되며 君子도되며 紳士도될入것이니 無貪無求하는 崇高한德行으로 卽社會를爲하여產業을이르키는者입入것이다. 三寶 物은法을觀察하는者의信賴하는곳이되기때문에 永 遠하게常住物이된다.

六

原始佛敎徒의傳道生活을入것가트면 그들은釋 迦道 佛敎를宣傳하기爲하여 四處로遊行하였다. 그 러케分散할때마다 商用의商船도라고 漁業의魚船 도라고 沙漠의駱駝도라고 海洋도전하며 峻嶺과 泰山도넘었다. 그렇으므로有時에는風浪을만나서 覆 船의境遇도만나며 有時에는 虎狼豹熊의猛獸도만 나며 有時에는 剽盜強盜의賊人도만났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無所畏의佛敎精神으로 佛敎의眞理를 說하여 商人의恐怖를 安慰하며 賊人의惡心을改 悔시키며 虎狼猛獸도 說法逐出하며 海洋風神도 說敎鎮定시켰다. 그렇으므로印度原始經濟界商人과佛 敎徒와는 密接한關係를가지고 商人은財施로써僧 侶에臨하고 僧侶는法施로써 商人의施設하였다. 그런중에도 當時僧侶는 知足得取 知量受用하였 습으로 一鉢食一破衣以外에는 아무것도取하지아 니했스며 施主가있어서 數圓에淨財를 마치되四 方에 捨心으로써臨하며 四方에捨心으로與하였 습으로 此에淨財融通分配效用的基礎가 儼然히서

술편이다 法에活用되는淨財는 다시法에活用되야 마지아니하나니 釋尊의經濟의思想은 이곳에發見 할수밖에없다. 歷史上에著名한 富豪長者의子孫은 至今에그림자조차볼수업入것마는 一個乞食沙門의 釋迦의後孫이 東西各國에 無限際로繁殖되며 名山

大刹廣厦沃土의無限大의富庫를가지고 衣食할은佛 陀께서精神의法施로써 後孫을教導하신편만아니라 物質的財施로써보드려도 世界에類가업는 釋尊獨 特의經濟의恩惠라고볼수가있다하노라. (完)

華嚴哲學의內容 (前續)

金 敬 注

D 六相圓融

此 一般哲學의 最高哲理인 六相圓融說은 世親이 開闢하고 智儼이 神託을受하여 此를大成하고 賢 首大師가 此를唱導하였다. 前에述함은 六相의活 動이다 六相이라함은

一、總相。一이多德을含한故로。例하면屋舍의喻 로 보면 舍는 이 總相이다。

二、別相。多德은一이 아님故로。例하면椽·瓦·石等은 이 別相이다。

그런데 舍와稱成物即椽木等은總과別이다 椽이 나椽即是舍니라 椽그러나하면 椽이舍라獨히舍를 能作하는故로 萬一 椽을離하면舍는舍는舍라不成되 는데같은이다 若 得椽의時에即得舍이라 然하면問 하노라 若 椽이舍라舍를獨作하면 瓦·石을不有 하고 屋舍를 應作할수잇舍인가? 答 瓦·石等

……佛 教 第 四 十 五 講……

의아즉 不有할時は 是 緣이 아니다。緣은 이
 因緣이다。아즉 舍가不成할時は 因緣이無함에由
 하는故로 是 緣이 아니다。若是緣이면 그舍도
 成하고 若舍를不作하면緣이라名하지 못할지라 이
 論理法에依하여 總即別되는事 自明할人 것이다。
 그래서 柱一本으로 舍가 된다함은 一乘教의特徵
 이오 三乘教에서는不能이나 禪宗은此를應用한다
 以此觀之하면 緣이無하면 舍는全히不成하는故로
 緣이나 壁이 다 가리 舍이다。總이다。그러나同
 時에 밖밖은 各各別이다。萬一 總이眞理면 別
 도眞理다。舍가眞理면 壁, 柱도眞理됨이當然할지
 니다。

三、同相 多義가相違하지안고 一總을成하는故
 로。例하면 緣·瓦·石等이和合하여 屋舍를作함에
 相違하지아니하고 가리 舍의緣됨은 是 同相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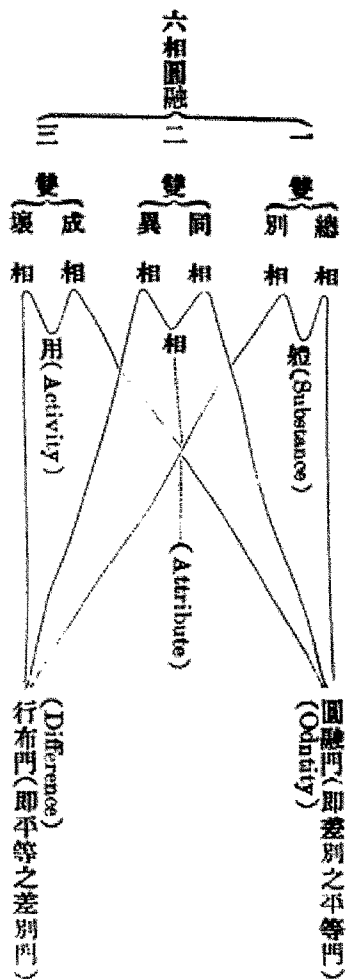
四、異相。多義가相違하여 各各異한故로。例하

면 이緣·石等이 各各 스스로 形類가 있서서
 서로 差別한은 是 異相이다。

五、成相。此諸義에由하여 緣起를成하는故로。
 例하면 此緣·瓦·石等이各緣이되야 舍를成함은此
 成相이다。成은一家의働이된다(壁은縱으로 緣은
 橫으로)

六、壞相。諸義各各自法에住하여 移動하지안는
 故로。例하면 緣은緣, 瓦는瓦로相集하여 一屋舍
 를成하나 各其個性을不失하고 守所에住하여動이
 없음을 이름이다。

然한대 總, 同, 成은 平等上에서 別이오 別
 異, 壞는, 差別上에서 別인故로 結局 平等과差別
 이다。그러니 平等은差別의平等, 差別은平等의差
 別로써 圓融無碍함으로 總을離하고別이無하며 同
 을離하고 異가無하며 成을離하고壞가無하다。此
 相의平等한것을 圓融門이라하고 差別됨을行布門
 이라한다。此를圖로示하면 左와 같다。



內容업는形式이업고 形式업는 內容이업다는 말 時는一月十五日夜이다窓外에는瑟瑟한白雪! 枯木
 과가리圓融인故로行布, 行布이기때문에圓融이다。에白花를피게하고光輝있는寒月! 그우물비천다! 아
 이것이事事無碍를 一層高尚히說明한것이다。最后 宇宙모다가相即相入의圓融無碍로華嚴玄妙의道間消
 도 至相大師의 六相頌을 聊히 左에揭하고 此 息아님이업다의姿態를凝視하면서擱筆한다。
 論文의結論으로한다。 (此는即哲科在學時代の論文이오니恕諒焉)

- 一 即具多名總相 多即非一是別相
- 多類自同成於總 名作別異顯於同
- 一多緣起理妙成 壞住自法常不作
- 唯智境界非事識 以此方便會一乘

